



Original Article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Prenatal Attachment according to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Jeong, Young-Sook¹⁾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산전애착과 친모와의 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

정 영 숙¹⁾

1) 마산대학 간호과 교수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and prenatal attachment according to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68 pregnant women was recruited from two OBGYN hospitals in M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an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questionnaire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and the period of investigation was from July 3-20, 2002. 41 of the 68 women were in a 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and 27 of the 68 in insecure ones. The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ean score of the prenatal attachment of the secure pregnant women and mean score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of the secure pregnant wome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insecure ones. 3) Prenatal attachment wa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mother-daughter attachment and husband-wife attachment in the 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However it was not significantly relationship in in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Conclusion:** It i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re is an intergenerational attachment relationship during pregnancy. Further findings support the development of creative strategies to enhance positive attachment relationships for pregnant women.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nursing education of attachment for the in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Key words : Pregnant women, Internal working model, Prenatal attachment,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투고일: 2004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eong, Young-Sook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100 Yongdam-Ri, Neseo-Up, Masan, Kyongnam 630-729, Korea
Tel: +82-55-230-1263 E-mail: yschung@masan.ac.kr

서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유대는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Bowlby(1982)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어린시절의 부모와의 애착 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 모아관계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Bowlby(1982), Bretherton(1985), Main, Kaplan과 Cassidy(1985)는 과거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이 내재화되어 미래 대인관계의 지침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내적 작동모델이라고 언급했으며 인간의 초기 애착 경험은 자기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아기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서도 아기와 안정된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어렸을 적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여 자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잇따른 애착관계 즉, 배우자와의 애착관계, 태아와의 애착관계, 가족과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Müller, 1993).

작동(working)이라는 형용사는 표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하는데 그 모델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Bretherton, 1987), 그 모델은 어렸을 적 주관적으로 경험된 것으로서 어머니와 아기의 역할 둘 다를 포함한다. 즉 모아관계 전체가 내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지각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하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함께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타인과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어렸을 때 발달된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의 어머니로서의 자녀의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Bowlby이론은 많은 연구들(Devine, 1988; Fonagy, Steele, & Steele, 1991, 1996; Main, et al., 1985; Ricks, 1985)에서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 따라서 국내연구에서도 자녀와의 애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연구가 발달 심리학, 아동학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Bowlby(1988)는 예비어머니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남편이나 친모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Ballou(1978)는 임신기간 자신의 어머니와 화해과정을 거치며 친모와 긍정적 관계를 발달시킨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은 Bowlby의 주장은 애착의 영향이 영유아기를 거쳐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애착이 개인의 결혼생활과 모아관계 및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이 출생 후 모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owlby, 1982; Devine, 1988; Fonagy et al., 1991, 1996; Main et al., 1985; Ricks, 1985)는 많이 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산전애착에 미치는 논문은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더우기 임부의 친모와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개인의 애착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형적인 맥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친모와의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부가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의 질적 특성에 따라 산전애착 및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임부의 정서적 발달과 산전애착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산전애착 및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안정형 임부와 불안정형 임부의 산전애착 및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정도를 비교한다.
- 안정형 임부에서의 산전애착,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불안정형 임부에서의 산전애착,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2. 용어정의

1) 산전애착(Prenatal attachment)

- 이론적 정의 : 임부가 태아에 대해 형성하는 독특한 애정적 유대로 임부에게서 발전되는 태아와의 상호적 과정이다(Gaffney, 1988; Müller, 1990).
- 조작적 정의 : Müller(1990)가 개발한 산전애착도구(Prenatal Attachment Inventory)로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전애착 점수가 높다.

2)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 이론적 정의 : 어린시절 형성된 돌봄제공자에 대한 애착이 시간경과와 함께 자기와 인지에 대한 신념으로 재조직된

정서적, 인지적 표상으로 어린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내재화되어 이후 성인기에서의 상호작용 즉 부모관계나 모아 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내재화된 내적표상을 내적 작동모델이라 한다.

- 조작적 정의: George, Kaplan와 Main(1996)이 개발한 성인 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과 성인애착평점척도(Main & Goldwyn, 1998)에 의해 애착유형이 분류되며 안정형, 불안정형으로 구분된다.

3) 친모와의 관계 (Mother-daughter relationship)

- 이론적 정의 : 친모의 초기 및 현재관계에서 친밀감, 지지, 공감을 포함하는 관계를 말한다(Bowlby, 1988).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Lederman(1984)의 산전 자가평가질문지(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의 친모와의 관계에 관한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동안에 갈등정도가 높다.

4) 배우자와의 관계(Husband-wife relationship)

- 이론적 정의 : 배우자와의 현재관계에서 친밀감, 지지, 공감을 포함하는 관계를 말한다(Bowlby, 1988).
-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Lederman(1984)의 산전 자가평가질문지(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동안에 갈등정도가 높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산전애착정도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마산시에 소재한 2개의 산부인과 전문병원 외래에 다니는 임부로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편의추출하였다. 선정기준은 임신 28주~30주에 해당하며, 산과 전문의에 의한 진찰 결과 조산의 위험과 관련된 산과적, 내과적 합병증이 없는 정상 단계 임부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임부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인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임부 중 위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안정형 임부 41명, 불안정형

임부 27명, 총 68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산전애착 척도

Müller(1989)는 Bowlby(1969)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27개 문항으로 된 산전애착척도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를 번역하여 간호학 교수 2인과 영문학 교수 1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척도는 4점 척도로(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산전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üller(1989)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로 나타났다.

2) 성인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은 반구조화된 질문지 형식과 비형식적인 임상적 면접의 특징을 갖추고 피험자의 심층적인 무의식을 현재의 마음상태로 드러나게 해 줌으로써 애착과 관련된 성인의 내적작동모델을 측정가능하게 이끌어 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George, Kaplan과 Main(1996)의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사용하였다. 성인애착면접은 평균 30~40분 소요되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질문지 형식에 따라 순서를 맞추어 심층적 질문을 하여 대상자들이 어린 시절 각각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5개의 형용사를 표현하게 하고 각 형용사를 선택하게 된 기억(사건들)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어느 부모와 더 가깝다고 느꼈는지, 왜 그런지, 어린 시절 거부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었는지,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떠나겠다고 가 아니면 내쫓았다),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 시절 부모가 왜 그렇게 행동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성격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외 주요상실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의 분석은 녹음된 면접내용을 전부 전사(transcript)한 뒤 Main과 Goldwyn (1998)의 성인애착 채점 및 분류체계에 의해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에 대한 분석으로 애정(loving), 거부(rejecting), 그리고 역할전도(involving/role-reversing)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애착을 분류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에 대한 현재의 마음 상태에 대한 분석으로 부모에 대한 이상화(idealization of parent), 회상의 어려움 주장(insistence on lack of recall), 부모에 대한 분노(involved/involving(preoccupying) anger) 상실과 외상에 대한 미해결(unresolved loss, unresolved trauma) 트랜스크립트의

일관성(coherence of transcript) 의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평정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가지 유형(안정형, 불안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성인애착면접에서의 내적 작동모델 유형의 분류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안정형(Secure)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인생초기의 애착관계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구체적인 기억에 의해 지지되고 유창하며 모순되지 않는 자율형을 말한다.

불안정형(Insecure)

애착관계를 이상화시키거나 모순되고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관해 기억이 없거나 과거 경험을 덮어두려고 하며 초기 애착경험이 자신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무시형과 애착관련 경험이나 부모의 영향력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일관적으로 설명해내지도 못하며 과거경험이나 부모에 대해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애착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몰입형이 합쳐진 것이다.

3) 친모와의 관계 척도

Lederman(1984)의 산전 자가평가질문지(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중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대단히 그러하다” 1점, “대개 그러하다” 2점, “약간 그러하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동안의 갈등정도가 높다. 연구 도구 개발 당시 이 도구의 분야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sim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척도

Lederman(1984)의 산전 자가평가질문지(Prenatal Self-Evaluation Questionnaire)중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각 문항을 “대단히 그러하다” 1점, “대개 그러하다” 2점, “약간 그러하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신동안에 갈등정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연구도구 개발 당시 이 도구의 분야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sim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4. 자료수집절차

M시에 소재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A,B 병원에서 본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절한 임부의 명단을 제공받아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약속한 날짜에 산부인과 외래상담실에서 만나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본 연구자가 성인애착면접을 실시하고 면접내용을 녹음하여 트랜스크립하고, 면접 분석하였으며, 성인애착면접 실시 후 기초자료 및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산전애착을 조사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0.1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 산과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간의 동질성 분석은 Chi-square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른 산전애착, 배우자와의 관계, 친모와의 관계정도의 비교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친모, 배우자, 산전애착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유형 분포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은 Main과 Goldwyn(1998)의 성인 애착애착체점 및 분류체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안정형 임부 69%(47명), 불안정형 임부31%(21명)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8세였으며, 수입정도는 평균 167만원이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이하가 48.5%, 대학이상 이 51.5%이었으며 종교는 「있다」가 55.9%, 「없다」가 44.1%이었고 가족형태를 보면 핵가족은 83.8%, 확대가족은 16.2%로, 대상자 대부분이 주로 남편 한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있다」가 85.3%, 「없다」가 14.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임부와 불안정형임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3.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임신주수는 28주, 평균 임신횟수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Characteristics		Secure (N=41)	Insecure (N=27)	Total (N=68)	t or χ^2	p
Age(years)	Mean(SD)	28.61(3.06)	28.96(3.63)	28.75(3.28)	-0.43	0.67
Income(10,000won)	Mean(SD)	170.00(73.59)	162.96(78.73)	167.12(75.22)	0.37	0.71
Education	high school	17(41.5)	16(59.3)	33(48.5)	2.06	0.15
	university	24(58.5)	11(40.7)	35(51.5)		
Religion	yes	21(51.2)	18(66.7)	38(55.9)	1.59	0.21
	no	20(48.8)	9(33.3)	30(44.1)		
Family	nuclear family	33(80.5)	24(88.9)	57(83.8)	0.85	0.36
	extended family	8(19.5)	3(11.1)	11(16.2)		
Occupation	yes	7(17.1)	3(11.1)	10(14.7)	0.46	0.50
	no	34(82.9)	24(88.9)	58(85.3)		

<Table 2> Obstetr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Characteristics		Secure (N=41)	Insecure (N=27)	Total (N=68)	t or χ^2	p
Gestational Age (weeks)	Mean(SD)	28.27(3.57)	28.93(2.54)	28.53(3.17)	-0.82	0.42
Gravidity(times)	Mean(SD)	1.73(0.91)	1.89(0.89)	1.81(0.90)	-0.73	0.45
Abortion	yes	19(46.3)	13(48.1)	32(47.1)	0.02	0.88
	no	22(53.7)	14(51.9)	36(52.9)		
Lamaze class	yes	9(21.4)	5(18.5)	14(19.9)	0.69	0.41
	no	32(78.6)	22(81.5)	54(80.1)		
Planned pregnancy	yes	25(61.9)	17(63.0)	42(61.8)	0.06	0.81
	no	16(38.1)	10(37.0)	26(38.2)		
Number of baby	1	26(61.9)	15(55.6)	41(60.3)	0.61	0.44
	2 or more	15(38.1)	12(44.4)	27(39.7)		
Taekyo	yes	28(69.0)	15(55.6)	43(62.3)	6.98	0.32
	no	13(31.0)	12(44.4)	25(37.7)		

<Table 3> Comparison of the scores of prenatal attachment, mother-daughter, husband-wif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e and in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Secure(N=41)		Insecure(N=27)		t	p
	Mean	SD	Mean	SD		
prenatal attachment	72.80	9.47	67.33	9.89	2.29	0.03
husband-wife relationship	17.82	3.31	18.34	3.81	-0.60	0.55
mother-daughter relationship	16.69	5.68	20.56	5.56	-2.77	0.007

1.81이었으며, 유산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52.9%,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47.1%이었다. 또한 계획된 임신인 경우가 61.8%, 계획되지 않은 임신인 경우가 38.2%이었으며, 라마즈 출산교실에 참석한 경우가 19.9%,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80.1%이었다. 첫 번째 아기인 경우가 60.3%, 2번째 아기인 경우가 39.7%이었으며, 태교를 했다 62.3%, 태교를 하지 않았다 37.7%이었으며,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 대해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안정형 임부와 불안정형 임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4.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친모와의 관계정도, 배우자와의 관계정도 및 산전애착정도의 차이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정도는 <Table 3>와 같다. 안정형 임부의 산전애착정도는 평균 72.8이며 불안정형 임부의 산전애착정도는 67.3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 이는 안정형 임부가 불안정형 임부보다 산전애착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안정형 임부의 배우자와의 관계 정도는 평균 17.8이며 불안

정형 임부의 배우자와의 관계정도는 18.3으로 불안정형 임부인 경우 임신기간 배우자와의 갈등정도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형 임부의 친모와의 관계정도는 평균 16.7이며 불안정형 임부의 친모와의 관계정도는 평균 20.6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7$). 이는 안정형 임부인 경우 친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정도가 적으나 불안정형 임부인 경우 친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정도가 더 높음을 시사한다.

5.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과의 상관관계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른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과의 상관관계에서 안정형 임부인 경우 친모와의 애착과 산전애착간의 유의한 역상관관계 ($r=-0.31, p=0.03$)가 있었으며, 배우자애착과 산전애착간에도 유의한 역상관관계($r=-0.41, p=0.004$)가 있었다<Table 4>. 애착이 불안정형 임부인 경우 친모와의 애착, 배우자애착, 산전애착점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4> Relationships among prenatal attachment, mother-daughter, husband-wife relationship according to 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prenatal attachment	-0.31 (0.03)	-0.41 (0.004)

<Table 5> Relationships among prenatal attachment, mother-daughter, husband-wife relationship according to insecure pregnant women's internal working model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usband-wife relationship
prenatal attachment	-0.07 (0.36)	-0.12 (0.28)

논 의

어린시절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으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미래의 모아관계뿐만 아니라 잇따른 애착관계 즉 성인기의 애착관계에서 배우자와의 애착관계나 가족과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82; Bowlby, 1988).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산전애착을 비교한 결과 안정형 임부인 경우 불안정형 임부보다 산전애착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이 안정형일수록 아이가 보내는 단서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아기와 따뜻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안정형 임부는 불안정형 임부보다 태아가 보내는 단서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산전애착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불안정형 임부는 애착을 무시하거나 애착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서 태아가 보내는 단서나 신호를 인지하거나 태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산전애착점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친모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안정형 임부인 경우 불안정형 임부보다 친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시절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친모와의 관계를 추정한다고 한 연구결과(Bretherton, 1985; Main, et al., 1985; Skolnik, 1986)를 지지하는 것으로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이 불안정형인 경우 친모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임신기간 태아와의 산전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친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산전애착은 발달한다고 보고한 Wayland와 Tate(1993)의 연구나 어린시절 친모와의 관계와 산전애착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 Curry(198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Lindner (1984)는 임신을 하면 임부는 어떤 어머니 상이 좋은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하며 그녀의 경험이나 환경에서 여러 모델을 살펴보다가 대부분의 임부는 그녀가 어렸을 적 어머니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 그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평가하거나 어머니와 화해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와 친밀감이 없다고 느끼는 청소년기 임부는 임신합병증 위험에 노출되거나 출생 후 아기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Wayland & Tate, 1993).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부의 내적 작동모델이 친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및 산전애착에 영향 미침을 시사해준다.

임신기간 배우자와의 관계는 질적인 모성행위에 중요하다(Grossman et al., 1980; Lederman, 1984; Mercer, 1986; Westbrook, 1978). 임신기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안정형 임부가 안정형 임부보다 다소 갈등정도가 높았으나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Kang(1999)의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불안정형인 경우 결혼갈등의 점수가 높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임부로 하여금 어머니와의 갈등을 화해시키며 모성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하거나(Ballou, 1978)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덜하며 임신적응을 쉽게 하며 아기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표현한다고 한 연구(Westbrook, 1978)결과에서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은 배우자와의 애착관계형성 및 산전애착에 영향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 친모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의 관련성에서 안정형 임부는 배우자와의 관

계, 친모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과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불안정형 임부는 배우자와의 관계, 친모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전애착의 구성개념(construct)을 명료화하기 위해 Bowlby의 애착과라다 임내에서 Bowlby의 애착이론과 Rubin의 임신적응이론에 근거한, 어린시절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으로 형성된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은 배우자애착, 임신적응, 태아애착에 영향 미친다는 애착모델을 제시하여 산전애착의 타당성을 규명하려 한 Müller(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애착이 친모, 임부, 영아에게로 영향을 미쳐 애착이 세대간 전이되었듯이 임신기간에도 애착이 친모, 임부, 태아에 걸쳐 계속 영향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른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간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임신기간의 애착은 산후 모아관계 뿐만 아니라 임신기간에도 활성화되므로 산전애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임부의 애착 유형을 고려하여 간호중재를 시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른 애착관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안정형 임부는 불안정형 임부보다 산전애착 점수 및 친모와의 관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안정형 임부인 경우 산전애착은 친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임부의 내적작동모델은 친모와의 관계 및 산전애착에 영향미침에 따라 애착은 산후뿐만 아니라 이미 산전애착형성에 영향 미침으로써 산전애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부의 애착유형을 고려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로 애착모델을 지지하는 추후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 애착유형별에 따른 애착증진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제언한다.
-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Kang, C. Y.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style, marital conflict, caring behavior,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Ainsworth, M. D. (1982). *Attachment: retrospect and prospect*. New York : Basic Books.
- Ballou, J. W. (1978). The significance of reconciliative themes in the psychology of pregnancy. *Bull Menninger Clin*, 42, 383-41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2nd ed.,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 Soc Res Child Dev*, 50, 3-35.
-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New York : John Wiley.
- Curry, M. A. (1987). Maternal behavior of hospitalized pregnant women. *J Psychosom Obstet Gynaecol*, 7, 165-182.
- Devine, D. J. (1988). *The effects of maternal working models on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ntioch University /New England Graduate school.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 62, 891-905.
- Gaffney, K. F. (1988). Prenatal maternal attachment. *Image : J Nurs Scholarsh*, 20(2), 106-109.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 unpublished manuscrip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 Grossman, F. K., Eichler, L. S., Winnickoff, S. A., Anzalone, M. K., Gofseyeff, M. H. & Sargent, S. P. (1980). *Pregnancy, birth, and parenthood*, San Francisco : Jossey-Bass.
- Lederman, R. P. (1984). *Psychosocial adaptation in pregnancy: assessment of seven dimensions of matern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 Soc Res Child Dev*. 50, 66-104.
- Main, M., & Goldwyn, R. (1998).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rcer, R. T. (1986). *First time motherhood: experiences from teens to forties*. New York : Springer.
- Müller, M. E. (1989).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Müller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Müller, M. E. (1990). Binding-in : still a relevant concept?. *Naagog's Clin Womens Health Nurs*, 1(3), 297-302.
- Müller, M. E. (1993). The development of the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West J Nurs Res*, 15(2), 199-215.

Ricks,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Monogr Soc Res Child Dev*, 50, 211-227.

Skolnick, A. (1986).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 early attach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course*. Erlbaum, Hillsdale.

Wayland, J., & Tate, S. (1993).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important others in adolescents. *Birth*, 20(4), 198-203.

Westbrook, M. (1978). The reaction to childbearing and early maternal experience of women with differing marital relationships. *Br J of Med Psychol*, 51, 191-199.